

# 윤나무 “9살부터 72살까지 연기…나를 돌아보는 작품”

‘쇼맨-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초연  
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대 넘나들며 변신

“인생은 내 키만큼 깊은 바다다.”  
과거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였던 72세의 노인 ‘네블라’는 무대에 올라 말한다. “파도는 계속 쉬 없이 밀려오는데 나는 헤엄칠 줄을 몰라 제자리에 서서 뛰어오른다.”  
이 첫 대사는 공연의 끝 무렵에 다시 한번 찾아온다. ‘네블라’로 분하는 배우 윤나무는 “작품을 감싸고 있는 문장”이라며 “공연을 보고 나한테 ‘네 키만큼 깊은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머리끝까지 차오른 바다는 사회나 삶에 매몰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 살기 위해 그 위로 계속 뛰어오르죠. 그 순간 진짜 나를 느낄 수 있어요.”

◆과짜노인 ‘네블라’ 역…과거 독재자의 대역배우 등 인생의 순간들

국립정동극장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쇼맨-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가 4월 1일 초연의 막을 올린다. 사회와 이데올로기 안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개인의 삶과 회복을 그린 블랙코미디 뮤지컬이다. 냉소적인 속물 청년이 우연히 과거 어느 독재자의 대역배우였다는 과짜 노인의 화보 촬영을 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나무는 영광과 절망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과짜노인 ‘네블라’ 역을 맡았다.  
최근 서울 중구 정동극장에서 만난 그는 “‘네블라’는 72세 노인이다. 저는 38살이지만, 9세부터 72세까지 연기한다. 쉽진 않지만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노인 분장도 하고, 무대 위에서 직접 분장을 지우고 과거로 넘어가는 순간도 있다”면서 “정신이 없을 예정”이라며 웃었다.  
“‘네블라’에게 중요했던 인생의 포인트를 정확히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보는 분들이 훨씬 감동이 있죠. 목소리나 신체적인 특징도 공부하고 있어요. 9살의 경우 네블라에게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그때를 상상하며 흠뻑 빠져들어가는 장면이기에, 나이보다는 그 감정에 집중하죠. 진짜 그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순간순간을 믿도록 만들까 고민하고 있죠.”  
작품은 인생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누구나 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주체적이지 못했던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심판받는 인물들을 통해 ‘개인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지만, 무겁거나 고리타분하진 않아요”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생각보다 재미있는 블랙코미디”라고 전했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다 이해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본이었어요. 캐릭터들은 그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나와 닮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번쯤 내 인생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는 작품이죠.”

◆뮤지컬 ‘레드북’의 한정석·이선영·박소영 신작…“성실하고 신뢰 있는 창작진”

‘쇼맨’은 뮤지컬 ‘레드북’의 작가 한정석, 작곡가 이선영, 연출 박소영이 다시 문전 신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주원의 사군자. 생의 계절’, ‘사춘기’ 등을 함께한 박 연출에게 출연 제의를 받은 윤나무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신뢰가 있었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는 창작진”이라며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분들이다. 초연은 수정을 많이 하는데, 연습하면서 수정된 대사나 음악도 거의 없다. 긴 시간을 공들여 만드는 창작진”이라고 두터운 믿음을 보였다.  
“공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그 시기에 열일 제쳐두고 하겠다는 의지였죠. 그만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작업하면 항상 즐겁고 유쾌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감사했죠.”  
윤나무에게 특별한 창작진이기도 하다. 최근 막을 내린 뮤지컬 ‘팬레터’로 6년 만에 뮤지컬에 복귀한 그는 졸곧 마음에 품었던 작품이 있었다. 세 창작진이 의기투합했던 ‘카인과 아벨’이었다. 지난 2014년 쇼케이스에 참여했던 윤나무는 “다시 뮤지컬을 한다면



‘카인과 아벨’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며 “그 창작진의 신작을 제안받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뮤지컬의 문법이 제겐 딱 들어맞지 않는 건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뮤지컬보다 연극이 더 끌리는 게 많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해보고 싶을 때 ‘팬레터’가 제게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한다는 건 큰 숙제인데,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진정성있게 노래하는 건데, 이번에 해스된 게 있어요. 겁이 났던 걸 좀더 즐기게 됐고, 그 힘을 받아서 ‘쇼맨’도 열심히 해야죠.”  
지난 2011년 연극 ‘삼등병’으로 데뷔한 윤나무는 연극, 뮤지컬에 이어 2016년 드라마 ‘남산타워 김사부’로 브라운관에도 발을 들였다. 최근에는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에도’도 출연했다. “앞으로 더 경계 없이 활동하고 싶은 게 꿈”이라며 “다 잘 해내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기를 일처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거창한 것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살아내자는 게 올해 소망”이라며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행복하더라. 나중에 떠올렸을 때 그 기억이 좋게 남는다”고 했다.  
“앞자리 변화도 얼마 안남았고, 터닝이 되는 해 같아서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했는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다보면 즐거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순재, 신구 선생님처럼 연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인생의 숙제죠. 선생님들처럼 계속 무대에, 카메라 앞에 선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 보아, 日 데뷔 20주년 프로젝트



가수 보아(BoA)의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셀프 커버 프로젝트(Self Cover Project)’의 세

### ‘다키시메루’ 오늘 공개

번째 곡 ‘다키시메루(抱きしめる)’가 4일 공개된다.  
이 곡은 지난 2005년 발매된 보아 일본 싱글 ‘다키시메루(抱きしめる)’를 바탕으로 영어 내레이션이 추가돼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셀프 커버 프로젝트’는 보아의 일본 발표곡들 중 10곡을 새롭게 편곡해 매주 한 곡씩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어그레시브(AGGRESSIVE)’, ‘메이크 어 시크릿(make a secret)’ 등 그동안 들었던 보아의 노래를 색다르게 만날 수 있다.  
한편, 보아는 오는 5월30일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더 그레이테스트(The Greatest)’를 발매할 예정이다.

## ‘오스카 폭행’ 윌 스미스, 아카데미 회원자격 자진 반납



‘오스카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할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가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스미스는 이날 낸 성명에서 “아

### “추가 처벌도 받아들일겠다”

카데미 회원직에서 물러난다. 아카데미의 추가 처벌을 받아들일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내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여준 내 행동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으며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스미스는 아카데미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자책했다. “다른 후보자들과 수상자들이 축하하고 축하받을 기회를 내가 빼앗았다. 그들이 엄격히 다시 조정이 맞춰졌으면 한다. 다시는 내 폭력성이 이성을 추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루빈 아카데미 회장은 “우리는 18

일 예정된 이사회에 앞서 아카데미 행동 기준 위반에 대한 스미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밟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아카데미에서 퇴출 당한 영화인은 대부분 성추문에 연루돼 있었다. ‘미투’에 연루됐던 제작자 하비 와이因斯坦인, 감독 로만 폴란스키, 배우 빌 코스비 등이다.  
앞서 스미스는 지난 27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대 위에 있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다. 록이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사발한 헤어 스타일에 대한 농담을 하자 격분한 스미스가 무대에 난입해 록을 폭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화 ‘킹 리처드’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지만 폭행으로 빛이 바랬다.

## 유재석,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1위

2위 이승기·3위 홍현희

개그맨 유재석이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예능인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유재석, 2위 이승기, 3위 홍현희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종국, 강호동, 김희철, 송지호, 김중민, 신동엽, 하하, 이상민, 서장훈, 김준호, 안정환, 김성주, 박명수, 이광수, 이수근, 김동현, 이경규, 김구라, 김민경, 하재, 이동국, 정형돈, 박나래, 송은이, 이찬수, 김명철, 차태현 등이 순위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결과는 지난달 2일부터 한달 간 예능인 50명의 빅데이터 3920만7747개를 분석해 나왔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유재석 브랜드는 링크분석에 ‘공개하다, 소통하다, 기부하다’, 키워드 분석에 ‘놀면 뭐하니, 런닝맨, 플레이유가 높게 나왔다. 유재석 브랜드에 대한 긍정비율 분석은 긍정비율 89.90%”라고 했다.  
한편 브랜드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



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해 참여 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두어 나온 지표다. 예능방송인 브랜드평판지수에서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나눠 분석했다. 브랜드평판에디터가 참여한 브랜드모니터분석과 한국브랜드포럼에서 분석한 브랜드가치평가도 포함됐다.

## 이효리, 성전환 앞둔 남성 팬에…“이제 언니 동생으로”

유튜브 채널 W KOREA

가수 이효리가 성전환 수술을 앞둔 팬을 위로했다.  
1일 유튜브 채널 W KOREA에서는 ‘이효리의 금쪽 처방은? 저스트 원 템미닛 10분 안에 고민 해결! 효리 언니의 고민 상담소 OPEN!’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효리는 28년 동안 남자로서의 삶을 마쳐

고 여자로서의 삶을 앞두고 있다는 팬에게 “요즘에는 사회의 시선이 예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건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다”며 “수술 잘 끝나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결정했으니까 그만 했던 고민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



여자여도 아름답고 남자여도 아름답다. 그것만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양수경 “아버지와 여동생, 남편 연이어 잃어…세상 무서웠다”



가수 양수경이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냈다. 양수경은 1일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방송

의 백반기행에서 “2013년 아버지, 여동생, 남편을 연이어 잃었다”며 “남편의 죽음 이후 남편이 진 빚 2억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이 무서운 시절이었다. 동굴까지 가서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 또 끝이 있는 느낌이었다. 누구라도 나처럼 만난 힘들지 않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세상을 떠난 동생의 두 아이를 거둬들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며 “큰아이는 요리하고 둘째는 대학에 다니고 막내는 음악 쪽 일을 한다”고 했다.  
양수경은 1988년 노래 ‘바라볼 수 없는 그대로’ 데뷔했다. 1998년 유명 음반제작자 고(故) 변두섭과 결혼했으나 2013년 6월 사별했다.